

(주)포스텍



대 표 이 사 : 이수영
본 사 :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3-33, 포스텍 빌딩
대 표 전 화 : 031-318-9350
대 표 팩 스 : 031-318-9352
홈 페이지 : www.fostec.co.kr
주요 생산품 : 광케이블, 광접퍼코드, 광접속 및 분배장치, FTTx용 Accessories 등

경기도 시흥에 가면 황금색 건물에 늦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반짝이는 한 기업이 있다. 건물 입구에서부터 깨끗하게 정리된 것을 보고 이 회사에서는 제대로 된 제품이 생산될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항상 처음처럼, 시간과 공간의 극복, 최고의 광 Total Solution지향이라는 경영이념을 갖고 2001년 설립한 기업 "FOSTEC(Fiber Optics Technology)"이다.

광통신 분야의 전문 중소기업으로서, 초고속 광통신용 부품 및 시스템등 기술집약적인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판매는 물론 미국, 일본은 물론 유럽, 남미, 러시아, 아시아 등 전 세계 30여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첨단산업의 경우 신제품이 없으면 금방 후발주자에게 시장을 넘겨주어야 하지만 (주)포스텍은 업력이 10년으로 매년 매출의 10%정도를 연구개발에 꾸준히 투자하고 핵심제품들을 생산 판매하여 정부로부터 우수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기간통신사 및 통신공사업체, 통신장비업체 등 300여개 국내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주력시장인 해외 시장을 목표로 꾸준히 도전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매출액의 절반정도를 수출을 통해 달성한 바 수출기업화 업체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의 탑 수상, 수출500-500프로젝트 선정 기업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까다로운 해외 수출을 위해 40여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ROHS / CE인증, ISO 9001 / ISO 14000인증은 물론 Telcordia test를 거쳐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함으로써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은 물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경기도개발사업자 등 정부과제를 다수 수행하여 성공하였다. 연구개발을 통해 6건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출원하여 등록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를 올려 경기도지사 표창, 경기도중소기업 대상, 경기중소기업인상, 중기청장 표창,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영예도 함께 안았다.

IT 강국인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초고속 광통신망을 갖추고, 이 분야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늘어나는 통신망의 수요에 대처하고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로 뒀지 오래되었다. 특히 국가간 장거리 전송은 물론 국가내 장거리 통신망을 포함하여 각 가정으로까지 광통신망(FTTH : Fiber To The Home)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수 년 내에 집안의 책상 위 컴퓨터까지 광통신이 연결되는 시대(FTTD : Fiber To The Desk)가 도래하여 현재의 통신 속도 및 서비스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주)포스텍은 초고속광가입자망 구축의 핵심인 광케이블망의 연결 및 분배 등에 소요되는 광커넥터 등의 핵심 소자와 부품은 물론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는 광제품의 응용분야에 핵심기반기술을 보유하여 남들이 하지 못하는 광통신 응용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다. 광통신의 장점이 초고속, 경량화, 대용량, 고밀도, 무유도 등 장점이 많은 반면 접속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주)포스텍은 조만간 도래할 광가입자시대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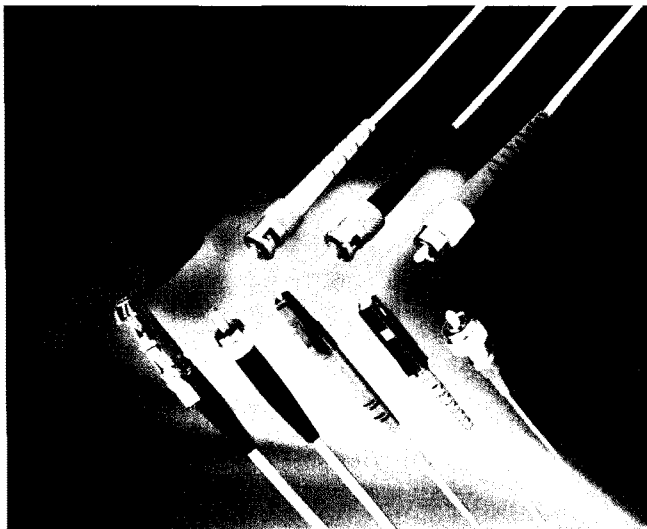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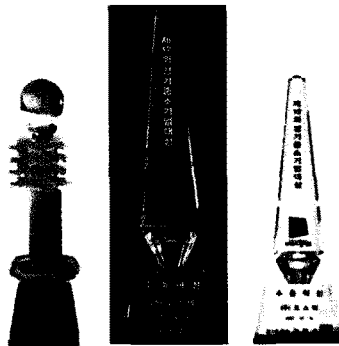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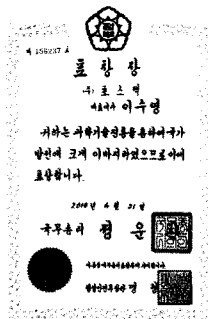
(주)포스텍 이수영 CEO는 "저희 회사가 지향하는 목표시장은 세계입니다.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작은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품질과 믿음을 고객에게 주는 것입니다. 1만원에 판 제품의 품질에 하자가 발생하면 비행기 타고 출장을 가더라도 해결하여야 직성이 풀립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불황기에도 10배 성장이라는 놀라운 정도의 기적을 일으킨 일본전산 나가모리 시게노부 사장이 말한 '즉시 하라', '반드시 하라', '될 때까지 하라'를 실천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고, 말로만 듣던 '작지만 강한 기업', '세계일류'를 향한 광통신분야의 작은거인 입을 실감할 수 있었다.

사 혼

{ 신뢰 }
TRUST

{ 공감대 }
PUBL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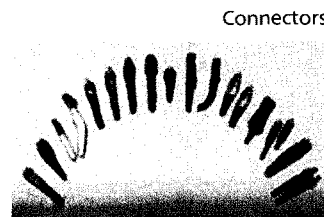
{ 도전 }
CHALLENGE



Optical Patch Cord



Attenuators



Connectors